



## “영국에 한복의 美 전해요”

한복 디자이너 이리자씨, 영국서 전시회

“한복은 몸의 결점을 가려주는 아름다운 의상입니다. 피부색에 상관 없이 흙이나 백인이나 누구에게나 잘 어울립니다.”

1972년부터 시작해 세계를 일곱 바퀴 돌며 아프리카를 빼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패션쇼를 했다는 한복 디자이너 1세대 이리자(72)씨가 주영한국문화원의 초청으로 영국에서 한복전시회를 열었다.

3일부터 8일까지 런던 왕립미술학교에서 ‘극동의 패션 : 이리자의 한복’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 전시회를 위해 이씨의 대표작 40여점이 비행기로 공수됐다. 40여년간 한복을 만들며 살아온 이씨의 삶이 농축돼 있는 작품들이다.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영국을 국빈 방문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만났을 때 권양숙 여사가 입은 하얀 모시 한복도 있고, 1974년과 1977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민속의상상을 탄 색동 한복들도 있다.

## “세상 변해도 편지의 소중함은 영원할 것”

‘편지 전도사’ 나선 추계예술대 김다은 교수

“자신의 특별한 두 다리로 에너지를 만들며 세상을 여행하는 편지쓰기의 묘미를 잊지 마세요. 그것은 타인에게 뿐 아니라 자신에게 보내는 감정의 선물이니까요.”

소설가 김다은 추계예술대 문예창작과 교수는 근래 무척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소설 창작과 강의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요즘 편지의 묘미와 소중함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편지 전도사’ 역할에 끝 빠졌다.

작년 3월 편지를 주제로 한 장편소설 ‘이상한 연애편지’를 펴냈던 작가는 같은 해 8월과 올해 10월 그동안 수집해온 다양한 작가들의 편지들을 둘러 각각 ‘작가들의 연애편지’와 ‘작가들의 우정편지’라는 제목으로 펴냈다.

## 아모레퍼시픽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 개최



(주)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서경배)은 지난 3일 광주시 광산구 아름다운 기개 첨단점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판매된 물품은 임직원들이 ‘일을 재활용품 기증 행사’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돋는 데 쓰인다.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9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오후 1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 알림

▲윤재문(전 광주일보 국장)씨 차

남 주호(국방부 법무관)군 이춘교

(경북 울진경찰서 경무과장)씨 딸

선녀(울산지검 검사)양=10일(토)

오후 1시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예식장 4층 무궁화홀.

▲이희풀씨 장남 수호군 장경택

(전 농협 전남도 본부장)씨 차녀 수

미양=10일(토) 오후 1시 예별루션

웨딩컨벤션 1층 세이지홀.

▲김선남(광남일보 부사장)씨 장

남 현석(KTT 주임)군 김용일씨 차

녀 숙현(SK텔레콤)양=10일(토)

오후 1시30분 오페라하우스 1층 특

실.

▲차주열(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

시회장)씨 장남 협기(대우인터내셔

널 대리)군 혼은자씨 차녀 강의향(

(서울 사전초교 교사)양=10일(토)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아동 일시 보호 원하는 경우. 국내 입양 상담. 미혼 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222-1095

▲홀트이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

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

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

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

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

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363-2240

▲호남해바리기 이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

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

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

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 동창·동문회

▲승원고 총동문회 월례회=5일(월) 오후 7시 녹차 맛인 오리. 011-212-2900

▲복성중 제 6회 동창회(회장 강

대식) 월례회=6일(화) 오후 6시 뜨

락. 511-0386

▲진흥고 3회 동창회(회장 조재

길) 출업 30주년 기념행사=10일(토)

오후 5시 무등파크호텔. 016-603-6200

### 종친회

▲광산이씨 상서공파 필문회(회

## 광주 공예인 신경식씨 ‘전국공예품대전’ 대통령상

### 개별상 부문 ‘자연+기능’ 장신구 25점 출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금남지하상가에서 ‘에덴공방’ 공예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씨는 무등미술대전 등 굵직한 대회에서 20여 차례 이상 입상을 하는 등 이 지역에서 공예품 제작에 인정을 받고 있는 실력자다.

특히 신씨가 만든 은제다기(茶器)는 광주광역시에서 1지역 1명품으로 지정했으며, 문화관광부에서도 ‘한국관광용품’으로 정하는 등 ‘공예품’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힌 예술가이기도 하다.

이번 전국공예품대전에 제출한 ‘자연+기능’ 작품은 전통문화인 당조문(唐草文·덩굴풀의 무늬)

의 형태를 접목했으며, 수억 원 된 암모나이트

(Ammonite)와 준보석류인 아게이트(Agate, 마노·瑪瑙)를 이용해 6개월의 작업 끝에 만들었다. 이 작품을 위해 남양주시 자연사 박물관에서 구하기 어려운 암모나이트와 아게이트를 제공해 줬다.

신씨는 “박물관 관장님이 암모나이트 등을 상품화해보자는 의미로 지난 1월 내게 의뢰했다”며 “처음 만져보는 것인 만큼 기술적으로 가공하기 매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신씨는 “열악한 시설에서 공예품을 만드는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할 수 있게 선배인 나부터 열심히 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 24시간 구급배낭과 함께 ‘생명 지킴이’

### ■전국 첫 전문구급대원 40명 구성

#### ‘119구급봉사단’ 한영길 소방교

“소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평상시에는 하늘에서, 업무가 끝나면 땅에서 뛰겠습니다.”

광주시소방항공대에서 항공구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영길(31·소방교)씨의 승용차에는 응급처치 장비를 담은 구급배낭이 항상 실려있다.

한씨는 근무시간이 아닌 일상·여가활동 중 주위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문구급대원 40명으로 구성된 ‘119구급봉사단’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주5일 근무로 인해 산악안전사고 등 여가 활동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병원 후송 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초기 대응이 중요해졌다.

이에 광주시소방본부(본부장 최정주)는 구급활동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급봉사단체인 ‘119구급봉사단’을 결성하고 지난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한씨 등은 지난 광주 전국체전 당시 안전요원들이 이용했던 고가의 구급배낭을 재활용해 휴대하고 우연히 미주치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게 된다.

구급배낭에는 혈압계·부목·소독 연고 등 11종 31점의 응급처치 장비가 들어있다.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한씨는 지난 2004년 8월, 꿈에 그리던 119구급대원이 됐다.

한씨가 지금까지 동부소방서 구급대와 남부소



#### 혈압계·부목 등 응급장비 31점 휴대

#### 근무시간외 일상생활 응급상황 대처

#### “최초 반응자, 역할 소홀 안타까워요”

방서, 소방항공대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면서 껴져가는 생명을 구한 것만 10여 명. 대부분 최초발견 당시 호흡이 없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했던 위급상황이었다.

“생명의 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한 ‘최초 반응자’가 구급차 도착 전까지 손을 놓고 있다면 이미 첫 번째 고리가 끊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씨는 많은 신고자가 ‘최초 반응자’로서의 역할을 소홀이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봉사단에 지원서를 냈다.

하지만 한씨 같은 응급구조사들은 운신의 폭이 좁은 편이다. 응급처치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보호자들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응급구조사에게 “빨리 후송하지, 뭐하느냐”고 다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0.1초가 아까운 응급환자들의 특성상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응급구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일도 간혹 있다.

응급구조사들은 소신껏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고 구조자 일행의 요구에 따라 후송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씨는 “구조구급 현장의 응급구조사는 임상교육 등 전문과정을 마치고 실전에 투입된 대원”이라며 “호흡이 정지된 경우 응급처치를 없이 3~5분만 지나면 뇌손상 등 2차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에 무작정 ‘후송’을 요구하는 것은 구조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인현기자 ahj@kwangju.co.kr

## ‘태권스타’ 문대성

### 화장품 모델 됐다



선수 복귀를 선언하고 올림픽 2연패에 도전장을 던진 ‘태권도 영웅’ 문대성(31·동아 대교수)이 화장품 광고 모델로 변신한다.

㈜웰스킨화장품은 3일 ‘문대성과 지난달 31일 광고 모델 계약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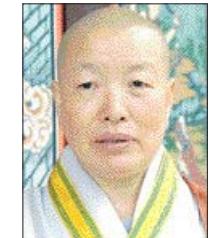
광고 촬영은 다음 달 들어갈 예정이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신문과 잡지 등 인쇄 매체를 통해 ‘남성 화장품 모델’ 문대성을 만나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웰스킨화장품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태권도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문대성은 세련된 도시 남성의 이미지를 갖춰 우리 제품을 알리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테네올림픽 금메달 이후 은퇴해 지도자의 길을 걸었던 문대성은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하겠다며 지난 6월 현역 복귀를 선언했다.

## ‘수형자 교회’ 정현 스님

### 국민훈장 동백장



정현 스님은 최근 교도소 법회를 통해 수형자들을 교화해온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정현 스님은 1970년 대원암으로 출가해 운문사 대교과를 졸업한 뒤 1978년 화엄사에서 비구니계를 받았다.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광주 교당,

천도교 교인 및 동학에 관심있는 분